

제시문 (가), (나), (다)는 이타적 행위의 근원과 동기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이타적 행위의 근원을 (가)는 선천적 본성, (다)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합리적 사유, (나)는 선천적 본성과 환경의 결합으로 파악한다.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이타적 행위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다. 이 때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났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연민의 감정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본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며, 다른 생각이나 조건 없이 본능적으로 이타적 행위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또한 이성적 사유과정은 오히려 선한 본성이 발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때문에 이타적 행위는 발전된 문명 사회보다 자연 상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이타적 행위는 흡혈박쥐들의 피 교환이다. 이 때 이러한 교환은 박쥐들이 이기적 본성을 타고 났으며, 불안정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는 박쥐들의 교환 행위가 교환에 참여하는 박쥐들 간에 상호 이익이 발생하며, 그 이익이 서로에게 동등하게 배분될 때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이타적 행위가 본능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가)와 달리 (다)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행위 주체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제시문 (나)는 (다)와 마찬가지로 이타적 행위의 주체가 이기적 본성을 타고났다고 본다. 다만, (다)의 박쥐들이 이기적 본성을 그대로 합리적 사유로 연장하여 행위의 동기로 삼았다면, (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점점 사회적 본능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사회적 본능이 이타적 행위를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이타적 행위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다)와 유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위 주체의 원초적 본성이 직접적으로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점은 (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